

정읍 고부향교 전교·유도회장 이·취임식 개최

1403년 창건된 고부향교가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화합과 발전을 다짐했다. 유림 회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미래를 그렸다.

지난 4일 정읍 고부동학술원센터에서 열린 고부향교 전교 및 유도회장 이·취임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임승식 도의원, 고경은 시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32대 육인청 전교와 제24대 박종식 유도회장이 임기를 마무리하고 제33대 박종식 전교와 제25대 호환오 유도회장이 새로이 취임했다.

이임사에서 육인청 전교는 “전교직을 떠나더라도 인의예지를 실천하는 유림으로서 향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종식 전교는 취임사에서 “유림 회원들의 화합과 유림 사회의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고부향교는 태종 3년(1403)에 창건돼 문화유산자료 제74호로 지정된 유서 깊은 향교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이후 선조 30년(1597)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져 공자의 위패를 중심으로 맹자 등 중국과 우리나라 유학자들의 위패를 모시며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고부향교는 청소년 예절교육과 윤리교육, 매년 석전대제 등을 통해 유교 가치를 전승해왔다”며 “앞으로도 유림 회원들의 소중한 경륜과 경험이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읍시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서울유유진안대리점.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기탁

노승환 서울유유진안대리점 대표는 7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진안에서 서울·남양·동원 유유를 보급하고 있는 노승환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안사랑장학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노 대표는 “기업은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해 우리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남원소방서, 전기차 화재진압용 방사장치 성능 시연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최근 화두 되는 전기차량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진압용 관통형 방사장치를 도입하고 지난 6일 성능 시연회를 가졌다.

방사장치의 가장 큰 특징은 전기차량 하부의 배터리를 보호하는 알루미늄 케이스를 방사장치의 커터 날이 천공하여 배터리 케이스 내부에 직접 소화수를 분사할 수 있으며, 기존 전기차량 화재진압 방식보다 발화점에 정확하고 빠르게 소화수를 공급해 직접적인 냉각소화가 가능해 신속한 화재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 김미옥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도입·발전 공헌도 인정

전북대학교 김미옥 교수(사회복지학과)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도입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부터 감사패도 받았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2024년 6월 신설된 사회복지서비스로, 김 교수는 이 서비스의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를 2022년부터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현재 제4차 연구를 수행 중이다.

김 교수는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다수의 연구와 전문 활동에 참여해 왔다. 특히 제6차 장애인복지계획 연구를 비롯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등의 모형 개발과 고도화 연구를 주도하며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 제공에 기여해 왔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서울시 헬린지사업과 광주 융합돌봄사업의 자문 및 평가 연구를 진행했으며, 복지부 및 지방정부의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방법을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데 앞장섰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장애 가족들을 위한 증거기반실천(Evidence-based practice) 구현 및 전문 인력을 양성했다.

김 교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두터운 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교수는 한국장애인복지학회와 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등 다수의 학회에서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복지부 사회제도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장은성 기자



김미옥 교수

순창군청 남녀 소프트테니스 실업팀, 신규선수 임용식 개최

설운수·서범규·김태희·서유빈·신유나 선수 영입

순창군이 소프트테니스 실업팀에 지역 출신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전문체육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더했다.

군은 7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신규 선수 임용식을 개최했으며, 이날 임용식에는 순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소프트테니스팀 선수단과 전북특별자치도 소프트테니스협회 박경만 회장, 순창군 소프트테니스협회 오성룡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영일 순창군수는 신규 선수 5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으며, 이들은 새로운 팀원으로 합류해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이번 영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학생 출신 선수를 대거 발탁한 점으로, 신규 영입된 5명의 선수 중 4명이 순창제일고 소프트테니스부 출신으로, 이는 지역 전문체육의 진흥을 목표로 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남자 소프트테니스팀에는 순창제일고를 졸업하고 각각 충북대와 강원대에서 활동했던 설운수 선수와 서범규 선수가 합류해 팀에 활력을 불어넣을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여자 소프트테니스팀에는 지난해 순창제일고를 졸업한 김태희 선수와 서유빈 선수가 영입되었다. 이들은 고등학교에서 실업 선수로 활동하며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경시청에서 2021년부터 활동해 온 신유나 선수를 영입해 팀 전력을 크게 보강하며, 2025년 시즌에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청 실업팀에 지역 선수를 영입함으로써 지역 스포츠산업과 지역사회가 더 큰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선수 여러분 모두 순창의 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의 이름을 빛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삼화선원, 남원 산내면에 이웃돕기 물품 기탁

남원시 산내면은 관내 삼화선원(주지 여강스님)에서 지난 1월 6일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미 10킬로 20포, 라면 30박스(143만원 상당)를면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여강 스님은 명절에 관내 이웃들을 살피는 백미 나눔 기부 행사를 올해로 11년째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나눔 활동 실천으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여강스님은 “이번 기부를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산동면, 곳곳에서 사랑나눔 잇따라

남원시 산동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나눔이 이어지고 있으며, 산동면 의용소방대의 50만원 상당의 현물 기부에 이어, 산동면 농악단 50만원, 각 마을주민들이 합심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등 현재까지 총 691만원 상당의 성금, 성품 기부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면 기관단체장 협의회에서 복지허브화 지정기탁을 통한 50만원을 기부했다.

지양군 산동면장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모금 행사에 참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힘을 합쳐 더 살기 좋은 산동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사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금산면, 노인일자리 발대식·교육 개최

김제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6일 오전 10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25년 노인일자리 발대식 및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명철 금산면장은 참여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참여의 취지와 중요성을 설명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사전교육에서는 안전사고 예방과 직무수행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이뤄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요촌동, 노인사회활동사업 참여자 모임·소양교육

김제시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6일 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노인일자리 모임 및 소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자 모임에서는 참여 어르신들의 주요 역할을 전달하고 노인일자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영상 소양교육을 실시했으며 6개조로 나뉘어 요촌동 곳곳의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할 준비를 마쳤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